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

예레미야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12, 17, 39
출애굽기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172
히브리서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33, 35, 57

11/23 월

렘 17:7-8

7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사 37:31

31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 50:4-5

4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5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단 6:10

10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마 6:6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14:22-23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 주차 1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0 장 - III. 옛 행위의 연속

11/24 화

렘 17:21-22

21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22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출 31:17

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육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

시 27:8

8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사 30:15

15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 주차 2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0 장 - IV. 가난한 땅으로 돌아감; A. 세겜에 머무름

11/25 수

출 31:13-15, 17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시이기 때문이다.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된다.
15 육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육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

고전 3:6-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전 15:10, 58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엢 4:14-15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 주차 3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0 장 - B. 벨엘로 올라감; 헤브론에 거함

11/26 목

렘 31:31-32

31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32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의 주의 말이다.

히 7:22

22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 8:6, 10-11

6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들을 근거로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10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 13:20-21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21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 주차 4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1 장 - 야곱의 성숙 (1-6 단락)

11/27 금

렘 31:33-34

33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4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히 10:19-20

19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 12:1-2

1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 8:1-2

1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입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주차 5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1 장 - 야곱의 성숙 (7-10 단락)

11/28 토

히 4:12, 14-16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찢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 7:25

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10:21-22

21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골 3:1-2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엡 1:17-18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8주차 6일 찬송 1188

11/29 주일

히 4:7-9

7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시어 '오늘'이라고 하시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골 2:16-17

16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히 8:1-2, 8-12

1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입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8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9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10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이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히 12:1-2

1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